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7

2018 | Vol. 556

눈은 하늘로 오르고(雪は空へ浮かび)

Photo : JIN WOOSOOK_나가노_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CLAIR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베 신조 총리 예방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아베 총리는, 방일을 환영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에 대해 북미 간 협의의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일한미 3국의 결속이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일한미 3국이 긴밀히 협력

해 갈 것을 확인했다. 또,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의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일한 외교장관회담

7월 8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이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장관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면밀히 조율해 가면서 일한, 일한미 3국이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으로부터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일한 관계에 대해 두 장관은, 오는 10월에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향해 양국 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가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일한 간의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두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일한미 외교장관회의

7월 8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이,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일한미 외교장관회의를 가졌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6일부터 7일까지 방북해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확인된 북미 양측 정상 간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크나큰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한 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협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이번 방북에서 이를 제기했다는 설명이 있었고, 고노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세 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모든 대량살상무



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지향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세 장관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면밀히 조율해 가면서 일미, 일한미 3국이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나가사키현과 부산광역시의 교류

나가사키의 역사는 외국과의 교류

나가사키현(長崎県)은 규슈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4,132km², 인구는 약 134만 명이다. 일본에서 섬이 가장 많은 현으로, 동중국해의 고토 열도(五島列島)와 이키(壱岐), 쓰시마(對馬) 등 59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및 중국 대륙과 가깝고, 특히 쓰시마와 부산의 거리는 불과 49.5km로 일본에서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현이다. 따라서, 일찌기 고토, 이키, 쓰시마를 통해 견수사(아스카 시대에 일본에서 중국 수(隋)나라로 파견한 사절)와 견당사(나라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 초기에 걸쳐 일본이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가 왕래했으며, 쇄국시대에도 무역의 통로로 이용되었던 데지마(出島) 섬과 조선통신사가 상징하듯 일본과 외국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한국과의 교류는 쇄국정책을 펼치던 에도 시대에도 쓰시마는 항상 한국에 개방된 창구로서, 12회에 걸쳐 조선통신사를 영접하는 등 단단한 교류의 연을 맺고 있었다. 지금도 쓰시마에서는 해마다 일한 교류 행사가 개최되는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0월에는 NPO법인 조선통신사 연지(緣地)연락협의회와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 추진한 사



세계문화유산 '오우라 천주당'

업이 결실을 맺어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나가사키현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나가사키현은, 200년에 걸쳐 일한 양국의 평화에 기여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의의와 근저에 흐르는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심을 다해 교류한다'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일한 양국 국민의 신뢰와 우호의 끈을 더욱 단단히 엮어갈 생각이다.

또 음식 문화에도 해외의 영향을 받아 나가사키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많다. 견당사선(遣唐使船) 시대에 대륙에서 가져온 '고토테노베우동', 에도 시대 초기에 중국에서 전해져 일본식, 중국식, 포르투갈식, 네덜란드식의 변화를 거쳐 나가사키 특유의 요리로 완성된 싯포쿠 요리, 메이지 시대에 나가사키 시내의 중화요리 가게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고안한 '나가사키 짬뽕' 등이 있다.

한편, 나가사키현은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나가사키 짬뽕

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활발한데, 교회와 온천, 야경, 이국적 정서가 넘쳐나는 거리 등이 매력으로 꼽히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나가사키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2018년 6월 30일(토), 바레인 왕국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돼, 앞으로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의 자매도시교류에 대해

한국과의 자매우호교류 관계를 살펴보면, 2014년 3월에 나가사키현과 역사적, 지리적으로 관계가 깊은 부산광역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그 밖에 사세보시(佐世保市)와 경기도 파주시, 쓰시마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운젠시(雲仙市)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하사미정(波佐見町)과 전라남도 강진군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비롯해, 쓰시마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한편, 사세보시와 부산광역시 서구는 국제친선도시협정을 체결하고, 대표단의 상호 방문 및 청소년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다.



‘한일 미래 세미나’ 2016 부산광역시 감천문화촌 시청

또 일한해협을 사이에 둔 북규슈 3현(나가사키현(長崎県), 사가현(佐賀県), 후쿠오카현(福岡県)) 및 야마구치현(山口県, 1999년부터 참가)과 한국 남해안 지역의 1시 3도(부산광역시, 전남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사와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일한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나가사키현과 부산광역시의 2018년도 우호 교류 항목 협의서 체결식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나가사키현과 부산광역시 교류

나가사키현과 부산광역시는 매년 두 지자체의 국제교류담당부 국장이 우호교류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류를 비롯한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는, 앞으로 나가사키현과 한국의 교류를 이어갈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양국 청년들의 교류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안을 기획, 입안하는 '한일 미래 세미나(日韓未來塾)'를 열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이 '한일 미래 세미나' 참가자에 일중 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들이 합류해, 3국 청년이 함께 교류하는 '한일 중 트라이앵글 교류회'도 개최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 교류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교류에 비해 힘든 점도 있지만, 국제교류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또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 행사인 '부산 글로벌 개터링(Global Gathering)' 및 '나가사키 미나토마쓰리'에 서로 공연단을 파견하고, 부산

광역시의 대학생이 나가사키현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부산-일본 자매(우호) 도시 대학생 인턴 교류 사업' 등의 인적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 교류는, 나가사키현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의 상호 워크숍과 나가사키현 매장문화재센터와 부산박물관의 심포지엄에 상호 강사를 파견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2017년 10월에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 부산광역시와의 교류를 더욱 촉진해 가고자 한다.

맺음말

나가사키 현민은 외국과의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서, 외국 분들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따뜻하게 대접하는 현민의 품성을 키워 왔다. 나가사키현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폭넓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해 가고자 한다.

(집필 : 나가사키현, 협력 : CLAIR, Seoul)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콘텐츠의 힘

2004년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다, 지금은 역으로 일본 콘텐츠를 알리고 있는 SPO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우시오 가즈키(牛尾一輝) 콘텐츠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를 생각해 본다.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콘텐츠 유통에 종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SPO엔터테인먼트 본사는 일본에 있으며, 주된 사업 내용은 영상의 유통, 배급, 판매 등입니다. 한국현지법인인 SPO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013년 설립되었으며, 저는 1년 후인 2014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되기 이전인 2004년부터 한류 붐에 따라, 한국 콘텐츠 구매를 위한 연락사무소로서 SPO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의 한류 붐이 가라앉고는 역으로 일본 드라마와 영화를 한국에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영화 콘텐츠 사업에도 뛰어들 이유는.

본사가 독자로 제작한 콘텐츠를 한국에 판매해 왔는데, 그 외의 콘텐츠는 한국의 케이블 채널 등과 경쟁하면서 콘텐츠를 사들인 후, 그들에게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가

簡単な会社のご紹介とともに、日韓両国のコンテンツ流通に携わ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を教えてください。

SPOエンタテインメントの本社は日本に所在し、主な事業内容は、映像の流通、配給、販売などです。韓国現地法人であるSPOエンタテインメント코리아는2013年に設立され、私はその1年後の2014年から勤務しています。

韓国ドラマ『冬のソナタ』が放映される以前の2004年から、韓流ブームに応じ、韓国のコンテンツを買うための連絡事務所としてSPOエンタテインメント코리아が設立されました。

しかし、日本国内で韓流ブームが落ち着いてきてからは、逆に日本のドラマや映画を韓国に販売するビジネスを始め、現在に至っています。

放送コンテンツ事業だけでなく、映画コンテンツ事業にも乗り出した理由は.

これまで本社が独自に制作したコンテンツを韓国に販売してきましたが、それ以外のコンテンツは韓国のケーブルチャンネル等と競争してコンテンツを買い取った上、彼らに販売しなけれ



적 면에서도 그다지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영화등급위원회의 등급을 취득할 때도 제한이 적기 때문에, 자유 경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제3차 문화개방으로 한국 내에서 일본 영화 붐이 일어나 ‘러브레터’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은 작품이 흥행했지만, 그 후는 흥행작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한국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일본영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본 콘텐츠가 인기인가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부동산의 인기를 자랑하며, 실사영화는 로맨스나 감동을 주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작품이 인기입니다.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기타노 타케시 감독

ばならなかったため、価格面であまり魅力がありませんでした。そこで映画関連事業を始めました。映画は映画等級委員会から等級を取得する際にも制限が少ないため、自由競争で新しいコンテンツを購入することが可能です。2000年の第3次文化開放によって韓国内で日本映画ブームが起こり、「ラブレター」や「いま会いに行きます」といった作品がヒットしましたが、その後はヒット作がなかった時期もありました。しかし、ここ3年間で、韓国の映画館で観られる日本映画がかなり増えています。

韓国ではどのような日本のコンテンツが人気ですか。

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は不動の人気を誇っており、実写映画はロマンスや感動ものといったやわらかい雰囲気作品が人気です。以前から韓国では北野武監督や枝裕和監督など、作品性がある映画が人気でしたが、徐々にライトな作品も人気を得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ます。

韓国の映画市場はどのように変わ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か。

2010年前は、「猟奇的な彼女」や「私の頭の中の消しゴム」といったロマンス系の作品が多かったのですが、2010年以降は主にブロックバスター作品が多く制作され、劇場のシェアも高くなりました。しかし、買値も安価で何十万人の観客数でも大ヒット作と呼ばれる日本映画のビジネスも可能だと思います。10代～20代が好むロマンスものへのニーズが現れている韓国の映画市場の状況は、2005年に日本で40代～50代のコンテンツがなかった時期に韓流ブームが起きた現象に似ていると思い



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등의 작품성 있는 영화가 인기였지만, 점차 가벼운 작품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화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2010년 전에는 ‘엽기적인 그녀’나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같은 로맨스 계열의 작품이 많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주로 블록버스터 작품이 제작되면서 극장 점유율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매가격도 저렴하고, 몇 십만 명의 관객으로도 크게 흥행한 작품이라 불리는 일본 영화의 비즈니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20대가 선호하는 로맨스 작품에 니즈가 보이는 한국 영화시장의 상황은, 2005년 일본에서 40대~50대 콘텐츠가 없던 시기에 한류 붐이 일었던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본 콘텐츠는 아직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 시장, 특히 한국 드라마는 고정 팬이 있어서 높은 가격에 팔리는 등 안정되어 있습니다.

J 필름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화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일본 영화를 많이 배급하는 회사와 협의를 거듭했습니다. 당시는 일본 영화가 인기가 없어서 영화관을 예약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10여 편의 영화를 한번에 상영하는 영화제를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동 회사의 제안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한국 콘텐츠로 영화관을 예약하는 것이 어려워서, 2005년부터 ‘한류 시네마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2016년 제안한 회사와 함께 CGV에서 제1회 J 필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콘텐츠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서로 좋은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양국의 콘텐츠 성장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ます。韓国における日本のコンテンツはまだまだ伸び代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日本における韓国のコンテンツ市場、特に韓国ドラマは、一定のファンがいるため、高値で買われるなど、安定した様子を見せています。

Jフィルムフェスティバルを始められたきっかけを教えてください。

映画コンテンツ事業を始めた際、ノウハウがあまりなかったため、日本映画を多く配給している会社と協議を重ねました。当初、日本映画は人気なかったため、映画館をブッキングすることも難しい状況でしたが、約10本の映画を一気に上映する映画祭を企画してみてもどうかとの提案を同社からいただいたのが始まりです。日本でも同じく、韓国のコンテンツで映画館をブッキングすることが難しかったため、2005年から「韓流シネマフェスティバル」というイベントを開催してきた経験があります。その経験も活かし、2016年に同社と一緒にCGVで第1回 Jフィルム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しました。

今後の目標やビジョン。

人と人との交流を活性化させるコンテンツの力はすごいと思います。今後も日韓両国で双方の良いコンテンツを紹介しながら、日韓のコンテンツの成長に少しでも携わ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



리에종 liaison

대기업의 브랜딩(branding)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뜻을 함께하는 친구와 '좋은 재료를 써서 우리가 먹는 그대로를 판매하자'는 마음으로 '리에종'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권민정 셰프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리에종’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 조리용어로 ‘농도를 내다’는 뜻도 있지만, 더 자세히 찾아보면 ‘연결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저희 가게 컨셉인 ‘스콘’이나 ‘후토마키’ 같은 것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발음도 좋고 저와 제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한 공간에서 연결지어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리에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일본 요리를 접목한 메뉴 및 베이커리 제품의 판매는 물론, 주말에는 쿠키클래스도 진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카페인데, 이런 컨셉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본인 선생님께서 후토마키 만드는 법을 배워서 먹어본 후, 그 맛에 반해 ‘언젠가는 내가 직접 만들어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친구도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모양

도 예쁘고 특이한데다 ‘후토마키를 통째로 먹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 드시는 분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컨셉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쿠키 클래스는 베이킹 클래스와 요리 클래스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맛있고 실용적인 메뉴 위주로, 일본 가정 요리뿐만 아니라 서양 요리, 한식 등 집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메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평일은 화요일, 직장인을 위해 일요일에도 열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오랜 동안

회원제로 운영해 왔는데, 단골손님도 많은 편입니다. 베이킹 클래스는 실습까지 하지만, 요리 클래스는 수업만 보고 맛있게 드신 후 힐링하는 기분으로 참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팔자’는 취지에 따라 저와 친구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커피는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즐기지 않아 에스프레소만 판매하는 등 우리 취향에 맞춘 메뉴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 좋은 재료를 써서 ‘우리가 먹는 그대로를 판매하자’는 생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민정 셰프는 일본 요리 초급은 물론 상급 과정도 수석으로 수료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본 요리를 배우면서 언제 즐거움을 느끼셨나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나라 요리를 배웠는데, 메뉴얼도 잘 갖추어져 있고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나카무라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리를 배운다기보다 기초 지식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일본 요리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귀국하셨지만, 가와시마 토시오 선생님께서 직접 대나무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선물해 주시면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어디선가 이 젓가락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심을 다해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1년 동안 개인교습을 받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일본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반대로 요리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자극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예전에 디자인 작업을 할 때처럼, 새로운 구상과 아이디어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작업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후토마키의 경우, 가운데 들어간 달걀말이 모양이 거의 네모인데, 이를 동그란 모양이나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등 그 동안 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를 담아 가르치고, 이를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생각으로 요리인의 길을 준비 중인 분들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도 힘들지만, 요리나 베이킹은 이런 업무보다 육체적인 면에서 몇 배로 더 힘든 거 같아요. 디자인은 책상에 앉아서 구상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요리는 직접 주문을 받아 손님에게 내놓아야 하고, 20시간 이상 주방에 있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또, 새로운 메뉴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싫으니, 다른 길을 선택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일이든 힘들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리에종’의 상징적인 메뉴는 스콘과 후토마키지만, 다마고산도나 후르츠산도처럼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메뉴를 구상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 최고의 히나타 미야자키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카정 다카치호 협곡

일본의 '히나타' 미야자키현

일본의 히나타(ひなた, 본래는 양지라는 뜻이나 미야자키현의 특성과 장점, 매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고 있다) 미야자키현(宮崎県)은 규슈 동남부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09만 명(울산광역시 116만 명), 면적은 약 7,735km²(충청북도 약 7,407km²)로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다.

평야지대는 태평양을 흐르는 난류와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규슈의 산지 덕분에 한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적고 눈도 거의 내리지 않으며, 게다가 일본 내에서도 평균 기온이 높고 연간 쾌청 일수, 일조 시간 모두 긴 편으로 온난하고 밝은 지역이다. 다만, 연간 강수량도 많은 편이어서 미야자키현 북부 산간지역에는 눈이 쌓여, 일본 최남단의 스키장인 고가세 하이랜드 스키장에서 스키 등 다양한 기호를 즐길 수 있다. 미야자키현 하면 일본인은 망

고, 치킨난반(チキン南蛮, 미야자키현에서 시작된 닭튀김 요리), 서핑, 야자나무(정식 명칭은 피닉스, 워싱턴니아 팜), 한국인은 골프를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이다. 미야자키 현민의 성격은 '느긋하고 너그로우며 상냥한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밝고 온난한 기후와 느긋하고 따뜻한 현민의 품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 최고의 히나타 미야자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하고 있다.

미야자키현이 자랑하는 일본 내 최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야자키현은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밖에도 미야자키현에는 일본 최고가 많다. 우선 3년 연속으로 일본 내 출하량 1위를 기록한 '소주'가 있다. 미야자키현에는 많은 주조회사가 있는데, 2016년에 '본격 고구마 소주(고구마를 원료로 증류해서 만든 소주)'를 중심으로 총 14만 kℓ의 소주를 출하했다.

다음으로는 ‘캐비아’가 있다. 198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4년에는 자연산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양식에 성공했으며, 2013년 일본산으로는 유일하게 본격 숙성 캐비아가 상품화되었고 일본산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었으며,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식재료의 일부로 제공되어 사용되는 등 앞으로도 증산이 기대되고 있다.

또 일본 최대의 전지훈련 장소이기도 한데, 일본 프로야구 구단 및 J리그 팀 외에도, 한국 프로야구 구단인 두산 베어스가 캠프를 차리는 곳이다. 그 밖에도 주택 기둥으로 사용되는 삼나무(통나무)의 생산량 그리고 짧은 출퇴근 시간 등 일본 내 최고가 많다.

도쿄보다 가까운 미야자키현

한국에서 미야자키현으로 가는 항공 편은, 미야자키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직항편이 2017년 12월 저가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의 취항으로 주6회 왕복(아시아나 항공, 이스타 항공) 운항되고 있어, 월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왕복 운항되고 있다(2018년 7월 현재).

비행 시간은 약 90분으로 도쿄보다 가깝고, 또 미야자키시의 변화가도 공항과 가까워 한국에서 가볍게 여행하고 싶을 때는 미야자키현이 제격이다.

미야자키현과 한국의 교류

다음은 각종 협정 상황 등 지자체 간의 교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자매도시 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다.

주민 참여의 기회도 많아, 국제 교류 시책의 핵심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국제 친선의 추진, 지역의 진흥과 활성화, 나아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① 미야자키현과 서울특별시의 협정

미야자키현과 서울특별시는 상호 우호 교류를 미래로 진전시킬 목적으로 2015년 11월 ‘일본 미야자키현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관광 교류 캠페인 사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두 지역의 주민들이 상호 시설을 우대 이용할 수 있는 ‘미야자키현-서울특별시 관광 교류 캠페인 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를 포함한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앞으로도 한국과의 교류에 힘을 쏟고자 한다

② 미야자키현 기초자치단체의 교류 현황

미야자키시(宮崎市)와 충청북도 보은군이 자매도시교류협정(1993년), 아야정(綾町)과 전라북도 진안군이 우호교류



보은 군청에서 기념 촬영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체험

협정(2011년), 미사토정(美里町)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이 자매도시교류협정(1991년)을 각각 체결했다. 모두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미야자키시와 보은군’의 교류에 대해 소개한다.

미야자키시와 보은군의 교류(중학생 상호 방문 사업)

미야자키현 중앙부에 위치한 구 다카오카정(旧高岡町, 미야자키시로 편입)과 충청북도 보은군은 1993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인적 교류와 농업 기술 교류 등을 갖고 있다.



허물없이 교류하는 모습

이번에는 미야자키시와 미야자키시 국제교류협회가 실시하는 교류사업인 ‘한국 친구를 만들자!’에 대해 소개한다.

이 사업은 4박 5일 일정으로 미야자키 시내 중학교 2,3학년 학생 10명이 보은군을 방문해, 보은군 현지의 중학생과 교류하고, 보은군청 방문 및 현지 중학교와 문화 시설을 견학하며 한복과 전통 문화 체험 등을 가졌다.

보은군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양국 학생 모두 말수도 적고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하루, 이틀 함께 지내는 동안 말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상대국 언어와 몸동작, 주변 어른 등의 도움을 받아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게 되었다.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전하거나, 반대로 배우는 등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이 좋게 지냈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 교류는 상호 교류이므로 보은군의 중학생도 미야자키현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국제적인 안목이 높아져,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간의 우호 교류, 특히 청소년의 상호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기 바란다.

(집필 : 미야자키현, 협력 : CLAIR, Seoul)

7월 일본영화상영회 여름방학 특선영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여름방학 특선영화로 상영한다. 한국에서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던 애니메이션 ‘늑대아이’ 등 재미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렌타ネコ

감독 오기카미 나오키 | **출연** 이치카와 미카코, 구사무라 레이코, 미쓰이시 겐

버니드롭 うさぎドロップ

감독 다나카 히로유키 | **출연** 마쓰야마 겐이치, 아시다 마나, 카리나

피아노의 숲 ピアノの森

감독 고지마 마사유키 | **출연** 우에토 아야, 가미키 류노스케(이상 목소리 출연)

늑대아이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감독 호사다 마모루 | **출연** 미야자키 아오이, 오사와 다카오(이상 목소리 출연)

괴물의 아이 バケモノの子

감독 호사다 마모루 | **출연** 아쿠쇼 고지, 미야자키 아오이(이상 목소리 출연)

상영 일정	영화 제목
7월 23일(월)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렌타ネコ
7월 24일(화)	버니드롭 うさぎドロップ
7월 25일(수)	피아노의 숲 ピアノの森
7월 26일(목)	늑대아이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7월 30일(월)	괴물의 아이 バケモノの子
7월 31일(화)	피아노의 숲 ピアノの森
8월 1일(수)	늑대아이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8월 2일(목)	괴물의 아이 バケモノの子
8월 3일(금)	피아노의 숲 ピアノの森
8월 6일(월)	늑대아이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J-MUSIC NOTES

플로백 FlowBack

그룹명인 플로백(FlowBack)은 ‘역류’라는 의미인데, ‘역류가 언제가는 시대를 바꾼다’는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결성되었으며 ‘MASAHARU’, ‘TATSUKI’, ‘MARK’, ‘REJI’, ‘JUDAI’로 구성된 5인조 댄스 & 보컬 그룹이다.

2014년 총 125,094개 팀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LINE 오디션’에 지원했던 사람 가운데 5명을 선발하여 구성했다. 본격적인 노래와 댄스 실력은 물론, 뛰어난 외모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이들의 라이브 퍼포먼스는 압권이다. 음악 제작 및 안무를 비롯해 수준 높은 프로듀스 능력도 있어 꾸준히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 <B.LEAGUE 2017-18 SEASON> 공식 테마송으로 ‘BREAKOUT’가 선정되어 맹활약 중이며 신곡 ‘No Other One’은 전국초중학교 리듬댄스만남 쿡쿠르 지정곡으로 선정되는 등 그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 B.LEAGUE란 2016년에 발족된 일본 최고의 남자 프로농구 리그로 B1~B3로 분류된 총 45클럽이 있으며 연간 총 1080경기가 진행된다. 10월 개막전부터 5월까지 매주 각 지역에서 경기가 열린다.



제39회 한일 양국 아동작품교류전시회

매년, 여름방학에 열리는 한국과 일본의 아동작품교류전시회가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사전에 작품모집을 통해 선발한 양국의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생의 그림 및 작문이 전시된다. 이 기간 중에는 전시장에서 그림그리기대회가 실시되며, 대회 마지막 날 우수작에 상이 수여된다. 입장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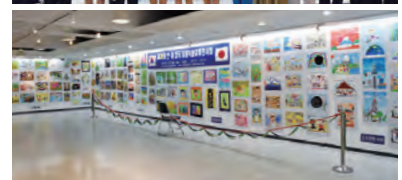
일시 8월 13일(월)~17일(금)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02-2273-7645



제14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한일교류 말하기대회'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대국의 언어로 말하며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는 행사다. 양국 교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하기 3분 내외(A4 1장 내외)의 스피치 원고(한국어, 일본어 2개국어)를 작성해서 9월 14일(금)까지 응모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한 약 20명에게는 각종 상장 및 부상, 기념품이 주어진다.

본선 일시 10월 13일(토) 14:00~

본선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참가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지만, 일본어 모국어 화자는 한국어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일교류말하기 대회 수상경력이 없는 자)

원고 모집 7월 26일(목)~9월 14일(금)

※ 메일로만 접수 가능(응모 마감일 24:00까지)

주제 주제는 자유지만 정치, 사상, 종교적인 것은 제외.
(예를 들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국(일본, 한국)의 문화에서 배울 점, 자국(한국, 일본)문화의 좋은 점 등)

분량 말하기 3분 정도 (일본어, 한국어 각각 A4 1장)

응모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다운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메일 제목과 파일명을 '한일교류말하기대회 응모_○○○(성함)'라고 적은 후,
이메일(jetaakorea@gmail.com)로 접수한다. 원고는 반드시 MS워드를 이용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작성할 것.(그외 제출파일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

관련 홈페이지

JETAA 대한민국지부 공식 커뮤니티 <http://cafe.daum.net/jetprogramme>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event/speech_contest_2018.html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CLAIR, Seoul) <http://www.clair.or.kr/>

본선 진출자 발표 10월 2일(화) 예정

문의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140)



2018년도 일본유학페어

일본 유학을 꿈꾸는 한국 학생에게 적절한 진학 선택과 실속 있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유학 제도와 고등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유학페어'가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9월 9일 코엑스에서 실시된다.

일본의 대학교, 전문학교, 일본어 교육기관 등 97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고등학생, 대학생 등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진학을 지도하는 교원 등을 대상으로 참가기관 부스에서 자료를 전시, 배포하고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또 설명회 및 경험담 발표 등도 이루어진다. 9월 8일(토)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실시 예정이다. 입장무료.

일시 9월 9일(일) 09:45~16:00

장소 코엑스

주최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공동 주최 전국전수학교 각종학교총연합회, 공익사단법인 도쿄도전수학교 각종학교협회,
사단법인 한일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02-765-0141, <http://www.jasso.or.kr>



2019년도 JET프로그램 설명회

주한일본대사관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협력으로 JETAA(JET Alumni Association: JET프로그램 경험자 동창회) 대한민국의회가 주최하는 JET프로그램 설명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JET 참가 경험담(국제교류원 업무 및 생활, 합격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과 JET 프로그램 참가 후 활동, 2019년도 JET프로그램 모집(변경내용, 신고 방법 등)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서울 7월 21일(토) 14:00~17:0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뉴센츄리홀 3층

부산 7월 28일(토) 14:00~16:50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부산YMCA 15층)

신청기간 6월 27일(수)부터 7월 18일(수)까지(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jet@so.mofa.go.jp)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1. 이름, 2. 핸드폰, 3. 이메일 주소, 4. 학력, 5. 출신, 6. 응모 직종,
7. 과거 JET프로그램 응모 여부(몇 년), 8. 참석 희망 장소 : 서울 또는 부산)

문의 02-765-3011(내선140) jet@so.mofa.go.jp



2018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나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한국의 중학생·고등학생 및 청소년(만4세부터 18세)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본어 능력 및 학습 유무와는 상관없이 응모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란다.

자세한 응모 방법과 상세 규정, 수상 내역 등은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ww.jkanacon.org

주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돗토리현, ㈜모리사와코리아, 지자체국제화협회, 기타큐슈항공이용촉진연락회, 시사일본어학원,

인페인터글로벌, 일본어저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응모기간 7월 2일(월)~10월19일(금)

응모처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 www.jkanacon.org

결과발표 11월 15일(목) 13:00,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www.jkanacon.org)

전시기간 및 장소 12월 5일(수) ~ 11일(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16회 한일 KARAOKE대회 예선참가자 모집안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후원하고, SJC(Seoul Japan Club)가 주최하는 '제16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은 일본어 노래를, 일본어가 모국어인 분은 한국어 노래를 부르며 되며, 그 이외의 외국어가 모국어인 분은 한국어와 일본어 노래 중 선택 가능하다. 또 예선대회에 참가 가능한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어도 응모 가능하다(단, 참가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

자세한 모집 내용은 SJ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jchp.co.kr>

본선대회 11월 3일(토) 14:00~ 동자아트홀 <http://dongja-artHall.kr/>

예선대회 10월 6일(토) 10:30~ 서울재팬클럽(영풍빌딩 12층)

응모마감 9월 15일(토) ※응모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예선참가자 결정.

주최 Seoul Japan Club(SJC)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관 SJC 교양문화위원회

문의 Seoul Japan Club 사무국 02-739-6962





2018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매년 일본의 여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8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을 7월 25일(수)부터 8월 7일(화)까지 개최한다. 우선, '일본의 세시풍속전'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특별행사로서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 쇼 제4탄'과 '전통악기 고토 미니콘서트' '아메자이쿠(飴細工) 실연회'가, 체험행사로는 <일본의 여름놀이 체험>, <초등학생 일본문화 체험교실>, <전통악기 고토 체험> 등이 진행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별행사 중심으로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을 소개한다. 참신하며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즐겨보자. 무료행사.

일시 7월 25일(수)~8월 7일(화)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동우화인캠(주)

문의 02-765-3011(내선120, 123) <http://www.kr.emb-japan.go.jp>

일본 최고 인기 다이도게 아티스트들의 서울 첫 공연!

간단한 곡예와 미술로 이루어진 다이도게(大道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도쿄도(東京都)의 '헤븐아티스트' 및 오사카시의 '오사카퍼포머'로서 인증받은 일본전통기예 '미존'과 코믹 논버벌쇼로 관객과 호흡하는 '이디오츠' 그리고 풍선아트와 여왕 '메이'의 환상적인 밸런스가 차례로 공연된다.

일시 7월 27일(금) 14:00, 7월 28일(토)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이디오츠 idio2

히투(Hi2)와 고스케(こすけ)가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다이도게 팀. 코믹컬한 연기를 베이스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2017 순천 JAPAN WEEK'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은 팀 중 하나다.



메이 MAY

풍선아트계의 여왕. 기존의 퍼포먼스 영역을 넘어서 여성 No.1 밸런퍼포머로 화려함과 다이내믹함이 특징이다. 일본 전통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부드러운 서도 강렬한 퍼포먼스는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존 미존

어떤 물건이든 저글링할 수 있는 퍼포머로서 밸런스 기술, 미술, 아트 밸런, 아크로바트 등 다양한 기술을 자랑한다. 각종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도쿄도 공인 헤븐아티스트, 오사카 퍼포머 라이선스, 에노시마 다이도게 퍼포머 라이선스 등을 취득했다.

일본의 전통 사탕공예 아메자이쿠(飴細工) 특별실연회

일본의 아메자이쿠시(飴細工師:사탕공예가)인 미즈키 다카히로(水木貴広) 씨를 초청하여 일본의 전통사탕공예기법인 아메자이쿠를 소개한다.

작품제작과정을 실연으로 보여주고 즉석에서 관람객의 신청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 준다. 어떤 작품이든 30초에서 2분 이내에 실감나게 완성된다. 사탕공예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물엿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 가며 갖가지 동물, 새, 꽃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만드는 일본의 전통기술 가운데 하나다. 자유관람.

일시 8월 3일(금), 4일(토) 14:00~16:00(2회 실연)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일본 전통악기 고토(箏) 미니콘서트 & 고토 체험

고토 연주자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씨와 함께 하는 일본의 전통악기 고토 미니콘서트와 고토 연주 체험이다. 도미모토 씨는 공보문화원에서 10년째 무료로 고토를 지도하고 있다. 이 행사는 고토의 명곡들을 감상하고 전통악기 고토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고토의 기본 상식과 연주법을 배워보고 일본의 대표적 전통악곡 '사쿠라'를 함께 연주해 본다.

일시 8월 7일(화) 14:00~16: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기간 9월 9일(일) 10:00~19:30

장소 코엑스 전시장 D홀(3F)

테마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행사구성 무대공연, 부스전시, 참가 이벤트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운영위원회

주관사무국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문의 한국축운영사무국 02-702-7775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

한국과 일본 양국간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이 9월 9일(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의 해 2005'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 최대 규모의 풀 뿌리 문화교류 행사로 성장해 왔으며,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를 테마로 다양한 무대공연과 부스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문화 교류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서 작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가 공식행사의 특별 퍼포먼스로 개최된다.

또 양국의 우정을 테마로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의 우정의 합동공연이 오프닝 공연으로 진행되며, 2부 즐거운 축제에서는 양국 전통공연으로 가부키 무용을 선보일 '기카큐야'와 한국 전통음악 연주집단인 '락음극악단'의 멋진 무대가 각각 펼쳐진다. 3부 즐거운 만남에서는 한국의 태권도와 도쿄 2020 올림픽경기대회 공식 종목이 된 일본의 가라테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4부 특별공연에서는 J-POP과 K-POP이 스페셜 공연으로 펼쳐지며, 전출연진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일광장'의 '페스티벌 월(Festival Wall)'에서는 방문객의 참여 코너로서 '한일축제한마당 응원 메시지'를 비롯해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1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작성 등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라는 테마에 걸맞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양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무대 공연과 평창올림픽에 이어 도쿄올림픽을 함께 이어가자는 의미로 '도쿄 2020 올림픽 PR 부스'와 '조선통신사 부스' 등이 준비되어, 진정한 축제의 매력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사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omatsuri.kr



막간을
이용하여
퀴즈 하나~*



가장고도 먼 이혼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힌트1 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주간 만화잡지에 연재되며 '소년탐정 김전일'과 함께 일본 추리만화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단행본은 물론 그 인기로 힘 입어 지금은 안방극장에서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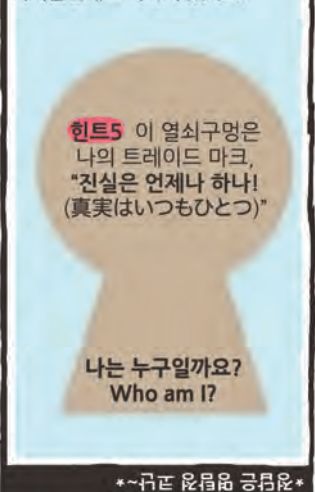
힌트2 제가 주인공인 이 만화는 전세계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인기만화가 되었지요.



힌트3 이웃나라 한국에서도 단행본으로 번역되었고, 지상파 TV를 시작으로 지금은 케이블에서도 저를 볼 수 있습니다.



힌트4 일본의 어느 공항은 만화의 주인공인 제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요. 마을의 실제 장소를 만화에 등장시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했지요.



일본의 돗토리현에는 이달로 개항 51년을 맞이하는 돗토리 공항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돗토리 사구 코난 공항'으로 더 유명하니 이곳은 바로 일본의 인기만화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의(青山剛昌)의 고향이다.



만화가 아오야마 고쇼는 일본에서도 수박으로 유명한 돗토리현의 기타에이정(北栄町) 출신으로 소박하고 평범한 이 시골마을을 명탐정 코난 덕후들의 성지로 만든 장본인이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지나치면 섭섭할 곳이 바로 '아오야마 고쇼 고향관'이라고 불리는 만화 팩토리.



공항뿐 아니라 근처 JR유라(由良)역의 또 다른 이름은 '코난역'. 마을 전체가 코난으로 도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난'하면 내 경우는 제일 먼저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감독의 '미래소년 코난'을 떠올린다. 글썄, 요즘 아이들이 우리 세대의 영웅인 미래소년 코난을 알랑가 몰라~ 후후~

